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5호 [무게 제23177호] 주체99(2010)년 8월 13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중국공안대표단과 유럽지역 주체사상 연구회 리사가 선물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안대표단과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가 선물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들을 12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품을

### 로씨야 신문이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의 상세한 내용을 로씨야신문 《프린트》 제29호가 게재하는 장군님의 사적을 모시고 올근 두면에게 게재하였다.

신문은 머리글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고 하시는 모든것을 다하시겠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

관련한 기만선전이 계속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기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 외곡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게재한다.

조선민족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독자들이 이 작품을 읽고 누가 진정으로 조선의 통일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기를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이다

### 국제사회계의 반향

국제사회계는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인민을 찬란한 미래로 향도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있다.

메히고신문 《우니다드 나세오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 행복의 소중함과 함께 그것을 마른해준 당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이 수적,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미국과 대항하여 승리할수 있었던 데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수많은 인민군인들이 자신을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불려달라고 하면서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거나 수류탄을 안고 적방크리로 뛰어들어 싸우는 등 애국의 감정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하며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들을 찬란한 미래로 향도하는 당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제사포조선친선협회와 제사포주체사상연구 및 구원소조는 공동발표에서 조선로동당은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해도 철저히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게 하겠다고 하며 나라의 경제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인민을 위한 시책들에서 자그마한 후퇴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이제라이신문 《오브저버》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조선이 사회주의를 드림없이 고수한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할수 있다.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집중적인 대조선압살공세와 편이온 자연재해로 조선로동당은 인민들과 교락을 갈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었을 때에도 조선에서는 서방에서 예측했던것과 같은 어떤 반정부소요나 사회적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보다 공고화되었다.

로트니아군로자협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있다고 하면서 오늘 조선인민이 반제국전쟁에서 견지하고있는 투철한 자주적립장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는 선군위업의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로트니아군로자협회 《키르즈델》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고,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조국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이 있는 한 그 어떤 세계적변혁도 이룩할수 있다는 신 증거를 띠고있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신이 선택한 강성대국건설의 길로 확신있게 전진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내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현시대의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당이며 인민에게 값높은 삶과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는 위대한 당이라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령도하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빛내이기를 김정일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활짝 열어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중앙통신】

## 백두의 혁명전통을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 불멸의 항일혁명업적 길이 빛내이며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간백산밀영을 참관

조국해방 65돐을 맞으며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간백산밀영을 찾아 끌었어 흐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며 제국주의강적을 반대하는 투사로서의 혁명전열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군사영재이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혁명백두산자주비밀근거지의 하나인 간백산밀영이 개명되어 온 나라를 기쁨에 설레이게 한 때로부터 수십만명의 당사자들이 간백산밀영을 찾았다.

영을 후손만대에 빛내일 우리 인민의 신념을 반영하여 간백산밀영이 개명되어 온 나라를 기쁨에 설레이게 한 때로부터 수십만명의 당사자들이 간백산밀영을 찾았다.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 경제강국건설을 과학기술로 적극 추동

### 국가과학원에서

최근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모인 과학기술연구성과 토대로 올해 총건설의 활로를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당위원회와 당위원회 지도면이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정, 최첨단들과의 기성으로 인민생활과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80여건의 중점전투목표를 비롯하여 수백건의 주요연구과제를 내세우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과학자들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내내비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총남가스화대건설에서 제기되는 선비들을 제기일에 정확히 생산보장하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속에서도 이룩되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들도 적지 않다.

물리학과 연구소, 경영공업과학원 연구소, 화학공업연구소,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연구소의 과학자들속에서도 이룩되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들도 적지 않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속에서도 이룩되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들도 적지 않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속에서도 이룩되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들도 적지 않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백두산지상개도식삭도, 공중려객삭도 정상운행





# 과학기술로 총공세의 승리를 앞당겨가는 시대의 기수

## 2. 16 과학 기술상 수상자들을 만나 보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새창에 들끓는 가운데 열대적인 열풍이 제 7차 2. 16 과학기술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수여식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특출한 기여를 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나라의 과학기술부상과 과학기술혁신상이 수여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 총공세의 승리를 앞당겨가는 시대의 기수들에게 온 나라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다는 신념과 과업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너무나도 낮은 모습들이였다.

강선의 봉화, 비날론폭포, 마그네시움과 생물의 주체화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에 내세우신 위훈의 창조자, 시대의 영웅들의 앞가슴에, 2. 16 과학기술상대상이 번쩍이고있다.

프로총합군, 대구모세멘트 생산공정의 컴퓨터통합조종제 그리고 우리 식의 3차원지리정보체계, 전력계통주파수 안정장치와 같이 현실에서 커다란 손을 내고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이룩하여 경에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널리 알려진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모습도 참으로 미더웠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온 탐구의 길, 창조자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프로총합군의 개발도입성과로 2. 16 과학기술상(개인상)을 수여받은 국가과학기술상 수상자들은 국가과학기술상 수여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방은 컸지만 초행길을 걸어야 하는 탐구의 길에서 쓰디쓴 실패의 맛도 보아야 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뜻하지 않은 급병에 걸렸을 때에는 완전한 성공의 날을 보지 못한 인생을 마칠것만 같아 가슴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없던 그 세월 막별이군의 아들로 태어난 저를 한복에 안아 길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며 과학자로 키워주시고 공훈과 격려, 박사로 내세워 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전에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연구공자를 꽃피우기 전에는

절대로 쓰러질수 없었습니다. 영광의 단상에 오른 수상자들 누구에게나 절세의 위인들이 드리는 이처럼 순결한 의리의 마음, 불타는 보탬의 열정이 가슴 가득 차있었다.

하기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적이지 않았을 것이니 하루빨리 일떠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길 바랍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당의 부름따라 최첨단과학의 기상을 안고 길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의 과학자들은 우리 식의 3차원지리정보체계를 완성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통일산악개발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펼칠수 있었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전기산업혁명의 개척자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애정을 받들고, 단련마그네시움, 대홍천년염광산, 국가과학원 화학연구소의 영예의 수상자들도, 대구모세멘트 생산공정의 컴퓨터통합조종제 개발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상 수여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발은 자기 땅에 밟고 눈을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나라 원로와 영예로 기초한 주체적인 강철생산공정을 최첨단

수준으로 일떠세우는데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겠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철중산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시한번 영광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기사장 송명호동무의 심정만이라고 하였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인 과학기술중시의 기둥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갈 신념의 맹세가 영예의 수상자들, 아니 온 나라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게 자리잡고있다.

“발은 우리의 사회주의러전에, 눈은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당이 안겨준 강철의 당력과 배양,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걸사관철해갈 철석의 의지로 넘쳐있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어디 어디 조국의 품속에서 마음껏 키워온 창조적힘과 지혜와 재능을 오늘의 총공세에서 높이 펼쳐가는 미래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대우대가 있기에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역전 기둥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설 그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 애국의 마음 비낀 약초재배기지

## 평양약초재배시험장을 찾아서

무연한 수심정보의 약초밭을 바라보며 우리가 평양약초재배시험장에 도착한것은 해가 중천에 떠오른 때였다. 장장 김광동무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벌써 그슬린 그의 모습은 시험장일만 놓 사일 한가지라던 뜻사람들의 말을 확인시켜주는듯싶었다.

우리는 소박하게 꾸러진 시험장의 소농구버림장에도 들렀다.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여기저기서 쓰다버린 쇠붙이들로 삽이나 호미날, 낫날 등을 만들기도 하고 자루같은것은 자체로 자레운 나무로 장만한다고 하니 정병 이곳에서는 소농구버림과 더불어 애국의 마음도 함께 버려지고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에게 대하여 다 안다고 말할수는 없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이들이 거둔 자랑한 성과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었다.

2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조를 새로 육성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위임없이 날라들이는 이곳 시험장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거름을 가져다 뿌린 보람이 있어 버림받던 땅이 오늘은 옥토로 전변되었다. 여기에는 20여년동안 버린 김광, 류운룡, 김양한, 맹해옥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의 땅이 깃들여있다.

그뿐이 아니다.

1천여명의 맹슴지를 개량하고 약초밭에 있던 최특과 돌자담을 없애어 5정보의 새땅을 얻어낸 사실, 거기서 나온 돌로 방목과 양어장건설에 이용하였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우리는 소박하게 꾸러진 시험장의 소농구버림장에도 들렀다.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여기저기서 쓰다버린 쇠붙이들로 삽이나 호미날, 낫날 등을 만들기도 하고 자루같은것은 자체로 자레운 나무로 장만한다고 하니 정병 이곳에서는 소농구버림과 더불어 애국의 마음도 함께 버려지고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에게 대하여 다 안다고 말할수는 없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이들이 거둔 자랑한 성과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었다.

2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조를 새로 육성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위임없이 날라들이는 이곳 시험장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거름을 가져다 뿌린 보람이 있어 버림받던 땅이 오늘은 옥토로 전변되었다. 여기에는 20여년동안 버린 김광, 류운룡, 김양한, 맹해옥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의 땅이 깃들여있다.

그뿐이 아니다.

확고한 길을 열어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20여년간 약초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함으로써 이들은 시간의 약초관리소와 고려약공장, 병원과 학교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고려약공장에도 보내주고있다.

올아볼수록 수심정보에 안되는 적은 로력으로 많은 일을 해놓은 이들의 자욱자욱이 어려와 가까이 걸음을 옮길수 없는 약초재배시험장이었다.

어느덧 해가 누워넘어지는 저녁이 왔다.

우리는 공취는 소리와 더불어 들려오는 웅원소리에 이끌려 마당에 나섰다. 마당에서는 분조별배기구가 한창이었다. 고무로통의 줄거움으로 너도나도 뛰어들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만 생각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세사로운 하루의 저녁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만 생각되지 않았다.

높이 뛰어오르는 저 공처럼 아득도 이들의 가슴속엔 오늘보다 더 높이 정한 배의 목표가 세워져있으리라.

본사기자 방 경 찬

# 나라이 약초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 대중적인 사업으로 들어주고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큰 힘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쁨공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중국공안대표단을 만났다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 중국공안대표단 여러곳 참관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 조중 두 나라 국가품질감독기관들사이의 협조계획서들 조인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본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의학적정보센터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찾아와 호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실습지도사출발으로 대학교육관소일군들도 만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색블록생산지지 또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고있다.

대학의 축산기수들에서는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이 자라고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큰덕을 보게 된다.

고난의 천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온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분기가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일바는 모두가 적극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조중청년친선련환모임 朝鮮青年友好联欢會 2010년 8월 12일 평양 2010年8月12日 平壤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항하여 정면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평양 8월 12일발 조선 중앙통신] 일제의 패망 65년과 《한일합병조약》조각 100년에 즈음하여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 모임이 12일 인민문화공원에서 진행되었다.

모임 장소에는 《일본정부는 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서정정책을 당장 철폐하라!》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일꾼들,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 희생자유가족들,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종편 조선대학 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 중앙본부 사무국장장 일본의 전후보상요구활동가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평양시내 출판보도부문 기자들과 주조 중국, 로씨야 등 과거 피해자, 일본 교도통신사 기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흥선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일제의 패망 65년과 《한일합병조약》조각 100년에 즈음하여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모임이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피해자들, 원자탄피해자들이 온갖 학대와 모욕, 고통과 회생을 강요당한 데로 무더기 오렌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도 없고 아물지도 않는 것이 일제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최악의 상처들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최악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있는 일본을 저주하며 대를 이어서라도 원한을 꼭 풀어줄것을 피해자들은 호소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 모임 진행

일본정부가 오늘까지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묵살하였을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미화분식해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반인륜범죄행위들과 인적, 물적, 정신적, 학살 및 말살행위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국권을 무력으로 강탈한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수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배정책의 기복을 민족말살에 둔 일제는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터와 고역장에 강제로 연행하였으며 10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인민을 학살하고 200만명의 조선인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시켰다고 말하였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학살만행들은 일제야말로 인간살육을 도막으로 삼은 극악한 야수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정신적 측면에서 감행된 일제의 조선인말살책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가며 까밝혔다.

그는 역사상 그 류를 찾아볼수 없는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그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외무조조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비열한 책동을 준행히 규탄하였다.

과거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여 살육한 일본이 그들의 유골마저 되는대로 내버려두고 합마로 처분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억울하게 원자탄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의료방조와 지원을 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를 지고있지만 국교가 없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실재조차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있다고 말하였다.

현실은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반인륜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오늘까지 계속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책동에 편승하여 반공화국적대서정정책을 추구하고 조선의 통일일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그 무수 《제제》를 운운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피해만 끼쳐왔으며 공화국의 해괴공민단체인 종편과 제일조선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행위로, 역사와 정의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으로, 인륜과 도덕에 대한 잔혹한 유린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과거 저지른 반인륜범죄행위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제무를 청산하는것이 오늘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되고있지만 오직 일본만은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오그랑수를 쓰고있다고 말하였다.

일제의 반인륜범죄의 피해자들이 년로해지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로부터 일본이 하루빨리 과거청산을 하라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때 해도 우리 민족은 역사를 절대 잊지 않고 피해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가 과거청산에 대한 우리 피해자들과 인민

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회피책동과 반공화국적대서정정책을 당장 중지하며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을 그는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일본의 과거청산회피와 역사외교책동에 국제사회가 각성하고 이를 저지시켜야 일본정부는 책임행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일본은 과거청산회피와 역사외교책동에 국제사회가 각성하고 이를 저지시켜야 일본정부는 책임행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모임에서는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일제에 의한 강제연행피해자 진정복은 어린 나이에 합치되어 일본땅에 끌려가 피눈물나는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는데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는 일제가 강요한 노예로동과 인간이 아닌 멸시와 학대로 하여 조선사람들은 무주고혼이 되어 일본의 산과 바다에 내버려졌다고 말하였다.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고는 죽어도 눈을 감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65년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파렴치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있는데 대하여 준행히 규탄하였다.

그는 실사 피해자들이 모두 죽는다고 해도 우리 인민은 백년속적이며 철천지원수인 일본이 저지른 범죄를 절대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여주는 회화물이 방영되었다.

회화물은 정충명, 박영성, 리현숙, 윤영재, 리복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강제로 연행, 랍치되어 일제침략자들에게 너성의 정조와 존엄을 참혹하게 유린당하는데 대하여 고발하는 장면들을 담고있다.

피해자들은 인간으로서,

너성으로서 청춘시절에 누릴수 있는 귀중한 모든것을 일제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기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제에게 강제로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조선인 강제연행피해자들의 유가족으로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고 일본의 과거청산을 받아내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원자탄피해자 리계선은 일제의 군사적감정시 부모들과 함께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최 어린 최로 히로시마에서 원자탄피해를 받고 그로 하여 오늘까지 당하고있는 정신육체적고통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원자탄피해자문제는 과거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과 침략전쟁의 후과로 발생한 문제인데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익적 견지에서 우리 나라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청산이 국제적 흐름으로 되고있는 때에 유독 일본

이후 사사노 경이제가 발언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을 맺고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증언한것과 같이 조선인민에게 해어질수 없는 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기간 조선인민에게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는것을 거부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과거청산은 일본이 시급히 실행해야 할 법적, 윤리적의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조선인민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정책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대표하여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모임에 참가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일본정부에 보내는 편지가 낭독되었다.

교수 아사노 경이제가 발언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을 맺고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증언한것과 같이 조선인민에게 해어질수 없는 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기간 조선인민에게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는것을 거부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과거청산은 일본이 시급히 실행해야 할 법적, 윤리적의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조선인민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정책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대표하여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모임에 참가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일본정부에 보내는 편지가 낭독되었다.

이후 사사노 경이제가 발언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을 맺고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증언한것과 같이 조선인민에게 해어질수 없는 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기간 조선인민에게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는것을 거부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과거청산은 일본이 시급히 실행해야 할 법적, 윤리적의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조선인민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정책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대표하여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모임에 참가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일본정부에 보내는 편지가 낭독되었다.



일본 정부에 보내는 편지

지난달의 불행한 역사를 깨닫기 전산하고 국가간, 인민들사이의 진정한 화해와 우호를 도모하는것이 국제적 추세로 되고있는 오늘 과거 일제에게 강제연행되어 모진 정신육체적고통과 회생을 강요당하고 원자탄피해까지 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일제의 패망 65년, 《한일합병조약》조각 100년에 즈음하여 일제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모임을 가지고 귀 정부에 이 편지를 보냈다.

일제가 《조약》들을 남조하여 조선을 불법강점한 데로 부터 100여년이 지나고 우리 나라 일제에게 끌려가 온갖 민족적멸망과 천대를 받으며 노예적인 징병살상과 강제로동,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할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입힌 쓰라린 상처는 한층의 아열이 되어 우리에게 실한 정신적고통과 울분을 안겨주고있다.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해 우리는 하루에 14~18시간씩 고역로동에 시달리고 총독관이 비참치는 전쟁마당

에 총알받이로 내몰리웠으며 조선인성들은 성노예로 처진방에까지 끌려가 하루에도 30~40명의 일본군에게 성폭행당하지 않았던 안 되었다.

그러면서도 온갖 천대와 멸시, 가혹한 폭행과 굶주림을 당하였으며 많은 조선사람들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만행에 의해 학살당하였다.

징병, 징용명장 한창에 아버지와 형님, 아들딸들을 빼앗기고 오래동안 생사여부도 모른채 유골도 없는 제를 지내거나 혹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를 혈육을 찾아 가슴을 태우고 일본땅에 끌려갔다가 원자탄피해까지 입고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있는 사람들은 얼마인지 모른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일본군의 악행에 원한풀고 쓰러진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 삼삼하떠오르고 귀를 기울이면 만리타향의 산과 강, 바다, 들만에 내버려진 동포들의 무주고혼이 떠치는 애달픈 통곡소리가 가슴 들리는것만 같다.

그러나 이 고통과 회생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장장 65년동안이나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있다.

일본정부는 그러한 불행을 초래한 저들의 행위를 과렴치하게 정당화하고 미화분식하고있다.

지금 일본에서 조선에 대한 감정사에 대해서는 물론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하여 서술한 교과서는 단 한권도 찾아볼수 없다.

정부고위관료들과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감정을 정당화하고 어용언론들이 강제연행과 《위안부》 범죄를 공공연히 부장하는 등 극심한 역사의 폭행위가 벌어지고있다.

일본정부가 우의세력이 주도하는 반공화국소동에 온 일본사회가 휘말려드는가 하면 일본의 과거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들인 제일조선인들을 합마로 차별하고 탄압하는 망명도 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되고있는것이 바로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처사에는 시간을 끌면서 우리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할것을 기다려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는 한편 군사대국화를 다그쳐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에 걸려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불사 우리 피해자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청산되지 않는 일제의 반인륜범죄는 두고두고 세상사람들에게 추악한 일면의 모습으로 비쳐질것이며 우리 인민은 세기를 두고 쌓인 원한을 절대 잊지 않고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이 시간을 끌면서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원한과 증오는 더욱더 증대될것이며 후파와 대가도 몇배로 커지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인민들은 일본정부가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터와 고역장에 강제로 연행하였으며 100여만명을 학살하고 200만명의 조선인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시킨 추악한 범죄에 대한 청산을 오늘까지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숙히 항의하면서 하루빨리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나설것을 다짐고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청산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범죄에 대하여 선군하게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도덕적의무이며 반드시 리행하지 않으면 안될 역사적, 국가적 책임이다.

일본정부가 정적으로 나라의 진도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몇몇이 살기를 바란다면 과거청산에 대한 전체 우리 피해자들과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이 아물지 않는 동안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과거범죄에 대하여 선군하게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도덕적의무이며 반드시 리행하지 않으면 안될 역사적, 국가적 책임이다.

일본정부가 정적으로 나라의 진도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몇몇이 살기를 바란다면 과거청산에 대한 전체 우리 피해자들과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이 아물지 않는 동안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6일 제일조선청년학생공회 (청상회) 부회장 홍흥수를 비롯한 청상대표들이 문부과학성 정책자문을 만나 제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정책에 항의하였다.

그들은 고등학교원생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행위라고 하면서 다른 외국인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학교에도

이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2만 3400여명의 서명문을 전달하고 도쿄조선학교고급학교 교부호자의 모임, 도쿄조선학교 어머니회연합회의 편명으로 된 요청서와 니시도쿄지역 보호자의 모임이 요청서들을 낭독하였다.

이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2만 3400여명의 서명문을 전달하고 도쿄조선학교고급학교 교부호자의 모임, 도쿄조선학교 어머니회연합회의 편명으로 된 요청서와 니시도쿄지역 보호자의 모임이 요청서들을 낭독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평양 8월 12일발 조선 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피괴배당이 반공화국제소동에 광분하면서 미국과의 공모결탁을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담하였다.

최근 피괴배당은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제소동에 광분하면서 미국과의 추악한 공모결탁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 행각한 미국무성과 재무성우두머리들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벌리면서 피괴들에게 대이란 제재에 합세할것을 압박하였다.

피괴들은 그에 역격계 추종하며 대이란제재가담을 정식 결정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상천의 어떤 침략적요구도 서슴없이 받아주는 피괴배당의 친미대적, 반민족적정체를

다시금 드러냈으므로 우리 인민과 남조선 계층들 비롯한 온 인민들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원래 제재요구 하는것은 반미자주적인 나라들과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압박하고 침략하기 위해 미국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수법이다.

그러한 남강도적인 제재들을 피괴배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미국의 특등추주, 전쟁수입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이런의 흥행준음은 삼천과 추주사이의 호나니 용납 못할 공모결탁으로서 미국의 주권인 피괴들의 수처스럽고도 가련한 처지를 보여준것이다.

지금 피괴들은 미국과 한착이 되어 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들어감으로써 안락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망신만 툴득히 하고있다.

특히 합선침몰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파시》요 위요 하며 멋있이 날뛰다가 주변나라들의 눈밖에 나고있다.

피괴배당은 미국에 추종하다가 결국은 남잡이가 제잡이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미국은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는 역적배당을 리용하여 남조선에 더욱더 틀어쥐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깊숙이 개입하며 피괴들을 침략전쟁정책의 노복으로 더 잘 부려먹으려고 하고있다.

《한미동맹》은 침략적인 《세계제국》전략수행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배당이 남부끄러움 모르고 《한미동맹판계》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다. 《마음 든든하다.》고 떠드는것이야말로 참으로 가관이다.

피괴배당처럼 미국의 철저한 추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침미주의의 운명은 력대적으로 비참하였다.

역적배당의 친미사대적추대는 그 대가를 툴득히 치르게 될것이다.

군사적위협은 어디서 오고있는가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파들은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벌려놓은 대규모의 전쟁연습들에 대해 《북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에 《방위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한 조선반도에서 파견된 군사대결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가해지고있단 말인가. 그것을 부인하는 몇가지 자료들을 보기로 하자.

얼마전 피괴군부의 한 인물은 미국에서 개발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문제를 입에 올렸다. 합동원거리공격탄은 미국에서 개발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문제를 입에 올렸다. 합동원거리공격탄은 미국에서 개발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문제를 입에 올렸다.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2012년까지 도입하기로 미국상권과 합의하였다. 피괴군은 47억원을 할당해 주었다. 모략적인 《천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막대한 자금을 낭진하면서 해군함정들에 유탄탄미정비물과 고성능수메이다를 도입하며 소형을 직송기들을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른바 《군사적위협》을 차지하고 북침선제타격능력을 완비하기 위해 최선공격용무기들에 대한 자체연구와 도입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피괴들은 미국의 《메트리트》 미사일과 맞먹는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광고하면서 그의 실험사들을까지 벌렸다.

호전파들은 《정밀무도무기개발의 촉매제》니 뉘니 하고 떠들면서 그에 기초하여 란도미사일도 격추시킬수 있는 요격미사일을 개발할 기도를 드러냈다. 더욱이 스키저널수 없는 것은 피괴군부가 얼마전 사정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지대수상함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것이다. 이것은 이순함미사일이 우리 공화국의

지만 조선반도에서의 위협은 북이 아니라 남에서 오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외세와 야합한 리명박배당의 위법한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이 핵억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은 응당한 자위권리이다. 피괴호전파들이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에게 군사적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에 대응하여 우리의 억력력은 자위의 계도를 따라 더욱 비장한 속도로 강화되게 될것이다.

리명박배당은 무도한 군사적위협과 도발을 매달리는것이 아니라서는 자멸행위이다. 그로부러 빛이저지될 모든 후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툴득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연합해상훈련

